



진리의 영이신 다른 보호자

밤거리를 걸어가던 미혼의 여성에게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공포에 사로잡힌 느낌은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딸이 걱정되어 나온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안도하게 됩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는 고마움과 평화로 채워집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넘치는 그 마음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호자를 약속하십니다.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두려움을 뛰어넘고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조건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란 무엇보다 사랑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진리의 영이신 다른 보호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그 보호자는 막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발걸음에 가속 페달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시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하늘로 올라가시겠지만 이미 사랑이라는 거대한 흔적을 남겨놓고 든든하게 지켜줄 보호자까지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큰 열매를 맺는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사랑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살아있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랑을 살아가는 모든 이를 감싸줍니다.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다른 보호자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살아가고, 또 사랑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보호자이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박철현 미카엘 신부 | 옥봉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사도 8,5-8.14-17

화 답 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 2 독 서

1베드 3,15-18 또는 4,13-16

복 음

요한 14,15-21 또는 17,1-11

나는 계속 걸었네

변혜연 율리아 시인/ 가톨릭문인회

아홉 살 꼬마가 참 오래 걸었다. 두어 걸음 뒤에서 따라오라 했다. 낯선 길도 더는 낯설지 않았다. 이야기 같은 길을 계속 걸었다. 친구인 듯 걸었다. 내 키보다 큰 코스모스 옆을 걷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걸었다. 걷지 않으면 답답하여 걸었다. 푸르스름한 새벽을 걸었고 태양을 머리에 이고도 걸었고 짙어진 채로도 걸었다. 북극성 자리에서 북두칠성 자리를 오가며 걸었다. 물길을 따라 가장 많이 걸었고 가리지 않고 걸었다. 틈만 나면 걸었다. 생일에는 김이 나는 미역국을 후 후 불어가며 걸었다. 잔소리와 통통 불은 떡국을 먹은 날도 걸었다. 꽃잎 물고 피약별 속으로 이십 대의 여름을 걸었다. 안개 안으로 걸었고 겨울에는 얼은 벼랑길을 걸었다. 걷다 보니 언제 꽃이 피는지, 잔가지를 옮기는 새를 보면 곧 알을 낳겠구나 싶고 고춧대를 그대로 두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도 만났고 멈추는 법이 없다는 자연도 만났다. 가끔은 내 쪽에서 외면했지만, 거미줄에 걸린 벌레에서 흠바람까지 길동무가 되었다. 오래 걸을 수만 있다면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걸었다. 냉이꽃 사이로 냉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다. 바닥에 펴둔 형짚이 채 두 뼘이 되질 않는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사이에 박혀 있어 잘 보이지도 않는다. 잔뜩 웅크린 채 바닥만 보고 있다. 보다 못한 이웃 장사꾼이 “곧 파장인데 어여 어여 팔아” 한숨을 뱉어가며 소매를 쓸어 올린다. 나는 이 천 원어치 냉이를 샀다. 옆에선 넉넉히 주고 어여 팔아라 해도 아주머니는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친다. 실랑이로 소란스러워지자 기웃기웃 사람들이 모여들고 두어 명이 냉이를 더 샀다. 살짝 비켜, 나는 걸었다. 사 온 냉이가 식탁에 오를 때마다 냉이꽃이 피겠다 싶다. 왜 그리도 작았나 싶은 형짚도, 안 된다고 손사래 치던 모습도 조물조물 무쳐서 식탁에 올려야지 싶다. 아홉 살 땀 몰랐던 냉이꽃에서 흰 방울 소리가 난다.

시간에 비해 세월이 바빠 간다. 봄에서 여름으로 모호한 경계를 걸었고 짧아진 겨울을 걸었다. 때로 오는 무리를 뚫고 걸어야 할 때도 걸었고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도 걸었다. 갈림길은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고 접어든 길을 계속 걸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대나무 숲에 갇혀 출구를 찾을 수 없어도 걸었다. 아물지 못한 상처가 자꾸만 들쭉거린다. 상처를 껴안고 걷는 길은 상처투성이지만 세상에 난 모든 길은 한곳으로 통한다. 집으로 가는 길이다. 처음부터 세상 모든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나 보다. 최근에 읽은 『하느님, 빵 좀 팔아 주세요』라는 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꽤 닮았다. 캄패조직에서 두목(책에서는 오야봉)으로 살았던 그가 세례(남종삼 요한)를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내용이다. 꼭 할 일이 있어 그것을 다 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었다는 남종삼 요한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성모 율타리공동체는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갈 집이었다. 30여 년간 걸쳐 무려 500여 명의 형제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주인공은 이 모든 건 아버지의 자비라 고백하며 빵 반죽으로 분주하다. 성모 율타리공동체는 건강한 노동으로 찬미와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때 그 아홉 살 꼬마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주님과 끊임없이 걷는 중이다.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 혼인 유대의 해소 방법과 혼인 무효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예시를 통해 혼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특정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사례 1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가 사회혼을 하고 살았지만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가 마리아로 세례를 받았고, 성당에서 신자인 아드리아노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갑순이 마리아는 재혼이고 아드리아노는 초혼인데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 해결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의 사회혼도 교회에서는 유대관계를 인정하는 혼인이지만 이혼 후에 갑순이가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고, 갑돌이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세례받은 편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 갑순이 마리아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리아노는 초혼이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 갑순이 마리아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성사혼'을 교회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 사례 2

신자인 갑순이 마리아와 아드리아노는 교회에서 '성사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지만 아드리아노의 배신으로 이혼을 하였고, 비신자인 갑돌이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돌이도 비신자와 이혼 한 후에 재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 해결

신자인 갑순이 마리아는 '성사혼'에 대한 혼인 유대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신청하여 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신자인 갑돌이의 '사회혼'에 대한 혼인 유대도 해소해야 하는데 갑돌이가 요셉으로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면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갑순이 마리아와 갑돌이 요셉은 '성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신앙에는 관심도 없고 세례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비신자인 갑돌이도 교회법원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 갑순이 마리아와 '관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만 교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혼인의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신자라면 비신자라 할지라도 교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신자에게 교회의 방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존중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 협조를 바라는 것이므로 비신자의 혼인 무효 소송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교구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모성심의 도움으로 오월에 더 빛나는 남지본당

황광지 가타리나

봄별 따사로운 정원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황병석 파스칼 주임 신부는 먼지가 내려앉은 의자를 손수 걸레로 닦아 자리를 마련한다. 사제관도 열려 있고, 그 앞에 놓인 의자들도 소통의 자리로 활용한다. 성모님 자애가 미치는 잔디밭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이 명당이다. 본당주보성인을 '성모성심'으로 모셨으니, 남지성당은 성모님의 달 오월에 더 빛난다.

성모성심의 공동체

성전의 제대 왼편에도 성모성심을 기릴 수 있는 성모님이 계신다. 교우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따르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북돋운다. 평일 낮미사에 참례하는 신자가 많지는 않지만, 수도자의 반주로 성가는 활달하고 전례가 경건하다.

남지성당 관할인 부곡공소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소임을 맡아 있다. 윤정진 베드로 수녀와 김정자 바오로 수녀는 거의 매일 본당 미사에 참례하여 반주도 맡으며 교우들과 친교를 나눈다. 저녁시간 말씀의 전례와 레지오 주회가 있는 목요일, 공소에서 주일미사가 있는 토요일을 제외하면 본당 신자들이 수도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 풍요로운 공동체가 된다. 남지성당 140명 정도의 신자 중에서 약 40명이 부곡공소 소속이니 비중이 큰 편이고, 그곳에서 소임하는 수도자의 역할도 크다.

50년을 향한 쇄신활동

남지본당은 1977년 12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46년차가 되었다. 2000년에는 '남지선교본당'으로 개칭이 되었고, 영산성당과 부곡성당을 아울러 작은 성당 세 개 체제로 사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2019년에 영산은 관할에서 제외되고 부곡은 관할 공소로 되어, 다시 '남지본당'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2021년 1월에는 영산본당이 설립되었다.

이리저리 변화가 많았던 본당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난해부터 50주년을 향한 쇄신활동을 차곡차곡 펼치고 있다.

“1.평일미사 적극 참석 2.성경통독하기 3.소공동체 월 모임 꼭 참석하기 4.선교활동 적극 실천 5.영적독서하기 6.왜적쇄신 계획에 적극 동참”



시골에는 낮에 사람구경하기가 힘들다. 인근 공단으로 출근하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찾아가고, 하우스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숨쉬기가 아까울 정도로 일손이 달린다. 주일미사조차도 어려울 수 있지만, 힘닿는 데까지 평일미사에 참여하고 코로나로 느슨해졌던 대면하는 신심생활을 일으켜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성경을 쓰면 더 좋다. 주임 신부는 친구약성경을 모두 필사하는 신자에게 목주반지를 선물하겠다고 격려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이어서 쓰는 것도 권장하는 좋은 방법이란다.

8개의 소공동체는 모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본당에서 장소를 마련하고 세심하고 친절하게 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지오나 신심단체에도 소속하여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를 바란다. 덕분에 올 1월에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의 모후 Pr.'이 새로 탄생했다. 꾸리아 단장과 레지오 단원들의 땀 흘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성경에 더하여 영적 독서하기도 과제다. 성인전이나 묵상집을 통해 신앙생활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여기다 외적쇄신의 수행을 위해 안토니오회를 발족했다. 60대의 '젊은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앞으로 본당을 지켜나가야 하는 일꾼들이다.

한 마리 양이라도 보살피는

작년에 한 명이 첫영성체를 했는데, 올해는 세 명이나 된다며 주임 사제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핀다. 주일학교에도 정성을 들인 덕분인지 올해는 열대여섯 명으로 늘었다. 주일날 9시에 주일학교를 진행하고, 교중미사 전후에는 차봉사를 하느라고 아이들이 성당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남녀고등학생 네 명은 복사를 서게 하였다. 남녀 네 명을 함께 서게 하느라 향치는 미사를 올린다. 지난 성삼일에도 이들이 복사를 서며 전례를 도왔다. 본당 1호 신학생 정창욱 보나베틀라가 방학 때는 학생들과 함께 성당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어른들은 이런 기특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마련해 주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는다.

시골사람들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 사회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혼배성사 없이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조당을 풀어주는 일에도 본당에서 팔을 걷었다. 성가신 절차 없이 빨리 오기만 하면 해결되게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부모들은 자나 깨나 '조당'이 걱정이었는데,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담을 덜어주며 관면혼배를 베풀어 호응을 얻게 되었다.

남지본당은 한 마리라도 찾아 데려오려는 방안을 골똘히 생각한다. 지난해 10월 본당의 날에는 버스 2대를 대절하여 전체 신자가 연풍성지를 다녀왔다. 남지 공동체와 부곡공동체가 하나 되어 큰 기쁨의 날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본당의 날에 전체 신자가 움직이지 않기로 미리 공지했다. 대신 각 단체별로, 소규모로 친목할 수 있는 나들이를 나름대로 짜도록 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남지성당의 일원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레지오든 소공동체이든, 신심단체든 어디라도 한 곳에 소속되어 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제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보다 신앙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고, 금과 은을 얻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얻는 것이 마땅함을 힘주어 말한다.





기억할 선종 사제
정순구(요한) 신부
2009년 5월 17일

견진성사

일시: 5월 21일(주일)
장소: 장재동 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장례지도사 4차 교육

일시: 5월 19일(금)~21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5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5월 21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5월 기도모임 (5월 성모성월 100단 묵주기도)

일시: 5월 22일(월) 09:00~16: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점심 식사 김밥 무료제공)
문의: 회장 010·9399·5454

217차 ME주말 안내

일시: 5월 19일(금) 19:00~21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기타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일시: 5월 27일(토) 10:00~16:30
장소: 부산분도명상집
준비물: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010·3271·0766(권 벨라벳다)

대구대교구 성령강림절 대피정

일시: 5월 27일(토) 10:00~17:00
장소: 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피정의집)
특강: 두현자 올리안나/ 양창우 요셉 신부
차량운행 및 문의: 010·9045·0191

재속만발가르멜회 마산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22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담당자 010·3191·8315

재속프란치스코회 영성특강 안내

일시: 매일 2주 토요일 11:00~13:00
장소: 칠암동성당/ 대상: 누구나
주제: 프란치스코의 경제
강사: 김일득 모이세 신부(ofm)
주관: 재속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프란치스코회 자원자 모집

모집: 5월 31일(수)까지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만 18세~55세 가톨릭 신자
과정: 지원기 (1년)교육 이수후 입회
문의: 재속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프란치스코회 유폴라(청년) 모집

모집: 6월 30일(금)까지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중 아씨의 성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만 18세~35세 미만 미혼 남, 여 젊은이

문의: 재속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청년(유폴라) 담당 010·4559·5134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일시: 5월 15일(월) 13:00~17:0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로마 교황청립 성서 연구원 성서학 전공, 현-대전교구 천안 원성동 본당 주임)
주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교구청 직원 모집

교구청 새 청사에서 함께 일할 **주방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1명
접수: 5월 17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각 1통
특이사항: 신체 건강한 분,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96)
문의: 사무처 055·249·7016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5월 15일(월) 13:00	중앙동성당	낮피정(저녁기도회 없음)	김재덕 베드로 신부(대전교구)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월 20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살레시오회	5월 21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꽃요셉과 분재를!

40년 분재 경력, 분재/분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공서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요셉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분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새 교구청 방문 주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새 교구청 방문 주간을 맞아 본당과 기관에서 방문하였다. 본당은 방문 일자별로 하청, 상남동, 중동, 남성동, 사파동, 경화동, 삼계, 칠원, 함안, 월영, 문산, 구암동, 신안동, 용잠, 거제, 여좌동 양곡, 양덕동, 사림동에서 신심단체 및 본당 전 신자들이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기관에서는 따뜻한 쉼자리,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방문하였다.

한자리회 사제들과 로템의집 소녀들의 감사미사 봉헌



5월 1일 교구 사제 모임인 한자리회원(회장: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 신부들은 로템의집에서 로템의집 소녀들과의 만남 20년을 기념하는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 주례를 맡은 강병모 파비아노 신부(대산본당 주임)는 “20년간 한결같이 소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한자리회 신부님과 직원들의 희생, 일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하였다. 마산교구 한자리회 사제 모임은 2004년부터 어려움에 처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속적인 도움과 기도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교구 전례꽃꽂이회 피정



교구 성소국(국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에서 주관하는 전례꽃꽂이회 피정이 4월 27일 진례성당에서 있었다. 피정 오전시간에는 미사와 특강, 오후시간에는 순례와 나눔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를 맡은 양태현 그레고리오 신부(진례본당 주임)는 전례꽃꽂이는 ‘전례주기에 따라 묵상 거리를 제공하는 거룩한 행위’이며, 이는 ‘전례꽃 성 예술’이라 불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좋은 몫을 택한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피정 참가자들은 박대식 빅토리오 순교 복자의 묘소를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순교자 신심을 본받아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하대동본당 천주의 성모 Pr. 2,000차 기념 주회



하대동본당(주임: 이상원 베네딕토 신부) 다윗의 적루 Cu. 소속 천주의 성모 Pr.(단장: 박선주 소피아)은 4월 28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천주의 성모 Pr.은 1984년 5월 3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여성 단원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주임 신부와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였다. 천주의 성모 Pr. 단원들은 자랑스럽고 용맹스러운 성모님의 군대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레지오 봉사 정신을 갖고, 더욱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삼손 이야기 1(판관기 13-15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의 예수두 번째 순례지는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단 지파의 땅입니다. 삼손이 등장할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여 마흔 해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민족의 억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울부짖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당신을 향하여 울부짖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먼저 나서셔서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조용히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천사에게 불임이었던 한 여성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로 알려진 이 무명의 불임 여성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 나지르인으로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구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인 삼손입니다. 삼손의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그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그가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놀라운 탄생 이야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영웅답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저자는 그의 생애를 세 명의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그려냅니다. 첫 번째 여성은 팀나에 사는 한 필리스티아 여인입니다. 삼손은 동족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원의를 거슬러 이 여인과 혼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못해 이를 수락한 부모와 함께 약혼하러 내려가는 도중에 그는 팀나의 포도밭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만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이는 포도로 빚은 어떤 것도 피해야 하는 나지르인 서원을 어긴 것이기에 그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숨깁니다. 얼마 뒤에 결혼식을 하러 내려갈 때 그는 길을 벗어나 다시 그 포도밭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 벌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벌집에서 꿀을 꺼내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가져다줍니다. 물론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포도를 빚은 모든 것과 시체 부정을 피해야 하는 나지르인 서원을 어긴 것임을 그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의 결혼식에 참석한 서른 명의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속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것이 나왔다.”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집을 불 지르겠다는 협박을 받은 여인은 칠 일간 삼손을 졸라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냅니다. 결국, 내기에서 진 삼손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필리스티아인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들러리를 서준 동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얼마 뒤 밀 수확기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삼백 마리의 여우를 잡아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밭으로 보내어 수확기의 밭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은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태워 버렸고, 삼손은 닥치는 대로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인 후 에탐 바위로 내려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의 르히를 습격합니다. 그곳의 유다인들은 삼손을 밧줄로 묶어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깁니다. 이때 주님의 영이 들이닥치자 삼손은 밧줄을 끊고 당나귀 턱뼈로 천 명의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라맛 르히’(턱뼈 언덕)가 되었습니다. 이때 몹시 목이 말랐던 삼손은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샘의 이름이 엔 코레(탄원의 샘)입니다.

삼손은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판관이었을까요? 나머지 두 여인과 그의 삶은 어떻게 얹히게 되고,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